

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제시 위해 일상화·지역화·선도성·디지털전환으로 재설계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본방향 재점검할 시점 ... <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

문화예술교육은 서울시민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을 성장시키는 교육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과 협력 증진 등과 같은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디지털사회의 급속한 진전 속에 인간다움을 성찰하고 인간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이나 심리적 문제, 삶의 질 문제 등의 개선에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2018년 <제1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다. 계획 연한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이르르게 되었고, 이에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제1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환경 변화와 서울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했으며, 정책방향 토론을 위해 전문가 및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과의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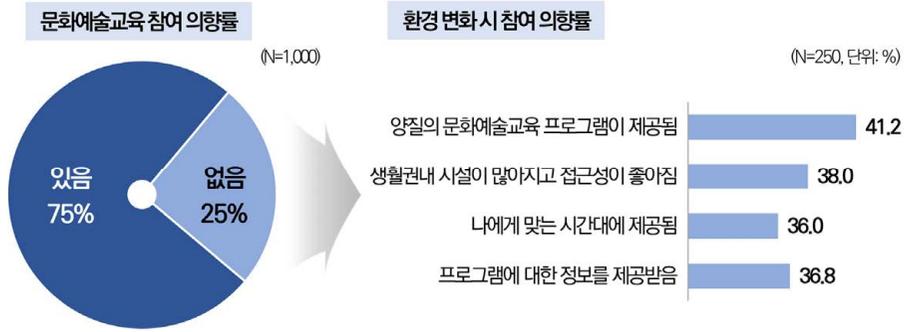
〈1차 계획〉 철학 확립 등 성과 있고 시민 소외 등 한계 극복해 〈2차 계획〉 설계

〈제1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8~2022)〉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의 문화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생활 속 문화예술교육 환경과 학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일상화, 다양화, 체계화 등 3대 전략하에 9대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총 1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정 및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등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이 확충되었다. 서울형 교육예술가(TA) 운영모델이 확립되고 창의·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이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미적 체험과 통합예술교육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방법론 확립은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가장 핵심적 성과 중 하나이다.

다만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설계되다 보니, 일반시민 대상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서울시에서 혁신적 사업모델을 설계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실행주체 중 하나인 자치구는 실행역량이 미흡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나, 자치구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치구 내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제도적 기반이나 전담조직이 미흡한 점 등 여러 한계가 도출되었다. 이 때문에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에는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의 혁신적 모델 창출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서울시민의 수요에 부합하고 자치구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담길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 75%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 73.4% ‘시 정책지원 필요하다’고 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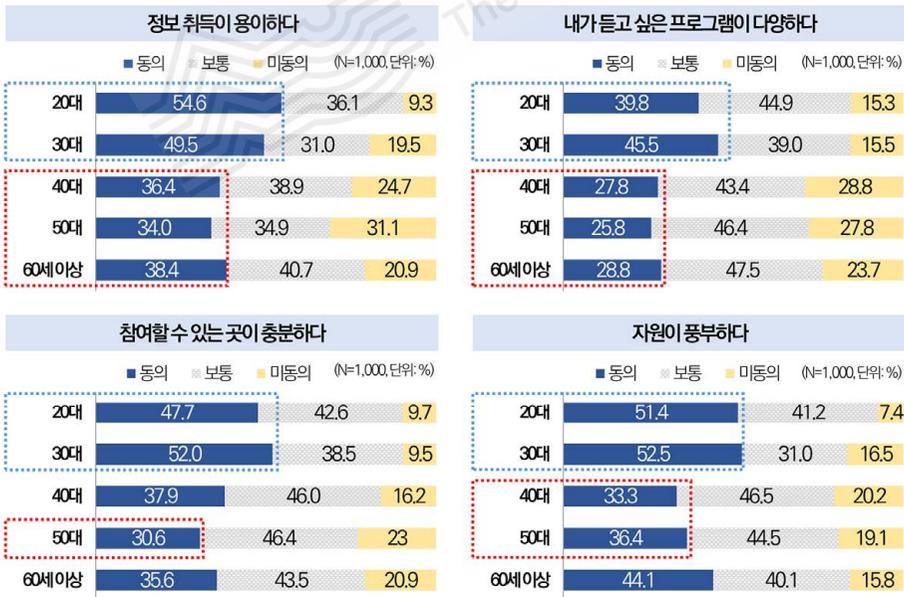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서울시민의 욕구와 인식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31.6%에 불과하였으나, 향후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에는 7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참여 의향이 없다고 밝힌 시민 중에서도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참여하겠다’(41.2%)라거나 ‘생활권 내 시설이 많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참여하겠다’(38.0%)라는 의향이 높아, 문화예술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향후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률(좌)과 환경변화 시 참여 의향률(우)

한편 서울시민의 80% 가까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삶의 질·행복감·즐거움 등 개인 심리적 차원에 도움을 주며, 자기계발과 성취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73.4%에 이르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문화예술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연령대별 서울의 문화예술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서울시민 중 40~50대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프로그램, 참여공간, 자원에 대해 다른 연령층보다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 설계 시 이들 연령대를 특별히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 경제적 배경, 시간여유 여부, 문화예술교육 경험 여부 등에 따라 학습기간, 장르, 교육방식 등에 대한 선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다양성 확보 문제가 중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차 계획〉에서 고려할 주요 의제로 ‘일상화·지역화·선도성·디지털 전환’ 선정해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및 서울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인식조사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2차 기본계획〉에서 중심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로 ‘일상화’, ‘지역화’, ‘선도성’, ‘디지털 전환’을 선정하였다.

‘일상화’는 서울시민이 일상적으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일반시민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욕구 등 대상별 특성에 대한 파악, 다양한 시민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다.

‘지역화’는 자치구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실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활권 내 평생학습체계로서 문화예술교육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가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선도성’은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이슈들을 교육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말한다. 기술발전, 문화다양성,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뉴노멀 시대의 사회회복력, 사회갈등과 포용사회 등 사회의제를 문화예술교육의 주제로 활용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급속한 디지털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의 방법론과 철학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발전된 기술을 문화예술교육에 융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문화예술 체험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여 기술변화 사회에서 인간다움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등 디지털 전환에는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2차 계획〉 목표로 ‘서울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혁신과 실행체계 고도화’ 제안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환경 변화와 시민 수요,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종합하여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을 위한 기본구상을 제안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의 사업 설계방향은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은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한 조례나 위원회 형성 등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의 추진기반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또한 학교 TA 및 지역 TA 운영모형을 통해 양질의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기획·개발 기능을 발전시켰고, 그 우수성을 대내외에 인정받았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형성 및 자치구(기초)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체계 강화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더욱 중점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의 목표로 ‘서울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혁신과 실행체계 고도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3대 전략과제로 ‘서울형 문화예술교육 확산’,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정책기반 입체적 고도화’를 제시하였다.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은 서울시가 서울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생산 및 문화예술교육 인력 혁신을 통해 광역거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전략이다.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한 문화교육’, ‘예술가가 직접 개발하고 가르치는 양질의 교육’, ‘사회의 이슈를 다루는 문화예술교육’과 같은 특징을 고루 갖춘 문화예술교육을 의미한다.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는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를 일반시민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전략이다.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 여부, 연령, 경제수준, 시간여유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서울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문화예술교육공간 접근성 강화를 다루고 있다.

‘정책기반 입체적 고도화’는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실행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구체화하는 사업전략이다. 광역(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과 기초(자치구와 자치구문화재단)를 두 축으로 놓고,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울시의 역할로 선도적인 문화예술교육 혁신을 직접 수행하는 동시에 기초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